

블룸버그 발표 3분기 M&A 실적

세움·LAB, M&A 거래자문 7·8위 차지

거래규모는 김앤장-태평양-울촌 순서

여러 평가매체에서 3분기 M&A 거래 및 자문실적이 발표되고 있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, 한국 M&A 시장에서 3분기 누적 총 1006건, 약 440억 달러 규모의 M&A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.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래건수 기준 7.8% 감소, 거래규모 기준 13.2% 감소한 결과다.

자본유출·유입 모두 증가

그러나 자본유출(Outbound) 거래가 3분기 누적 약 262억 달러를 기록하며, 전년 대비 거래규모 기준 15.4%, 거래건수 기준 19% 증가했으며, 자본유입(Inbound) 거래도 전년 대비 거래규모 기준 7.6% 증가했다. 올 3분기 누적 자본유입 거래는 약 99억 달러다.

특히 사모펀드(PE) 관련 거래가 전년 대비 거래건수 기준 19.2%, 거래규모 기준 3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법률자문 순위에선, 올 3분기까지 김앤장이 77건, 155억 68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하며 거래규모, 거래건수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거래규모에선 법무법인 태평양-울촌-세종-광장-지평의 순서로 많은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. 거래건수 기준은

3분기 누적 M&A 자문순위(블룸버그, 거래건수 기준)

순위	로펌	거래금액(백만 달러)	거래건수
1	김앤장	15,568	77
2	세종	10,243	59
3	광장	8,101	52
4	태평양	11,277	45
5	울촌	10,566	31
6	화우	977	27
7	세움	153	23
8	엘에이비파트너스	428	12
9	케이씨엘	206	9
10	지평	2,746	8
10	위어드바이즈	17	8
12	Latham & Watkins	1,154	4
12	베이커앤맥켄지	490	4
12	디라이트	59	4
15	클리포드 찬스	1,086	3
15	Dentons	436	3
15	J Sagar Associates	390	3
15	Khaitan & Co	291	3
15	Allen & Gledhill	122	3
15	Orrick Herrington & Sutcliffe	51	3

세종-광장-태평양-울촌-화우의 순서로 리그테이블이 이어지고 있다.

특히 중소 로펌의 약진이 두드러져 법무법인 세움이 23건, 1억 53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에 자문하며 거래건수 기준 7위를 마크했으며, 이어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(12건, 4억 2800만 달

리)가 8위, 법무법인 케이씨엘(9건, 2억 600만 달러)이 9위를 차지했다.

8건, 1700만 달러의 거래에 자문한 위어드바이즈는 거래건수 기준 10위,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건, 5900만 달러에 자문하며 12위에 이름을 올렸다. **LT**